달라이라마 "이제 환생제도 끝낼 때"

세계 대학생 대담서… 부정적 사례도 언급해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직접 티베트 불교 특유의 '환생제도'에 대한 종지부를 선언해 화제다. 불교전문 외신 '라이온즈 로어'를 비롯해 '타임즈 오브 인디아' '아시아 타임즈' 등의 외신들은 10월 28일, 달라이라마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달라이라마는 10월 25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환생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세계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한 대담에서 '현대에 살아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답 중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스승이 환생하는 제도를 인식하는 관습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티베트에서 생겨난 특별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가 고대 인도불교 전통에서는 없었던 것이며, 용수보살과 같은 인도의 대선지식들이 환생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환생제도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인도불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불교교리상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에 대해 "티베트의 환생제도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봉건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봉건제와 관련된 환생제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실제 불법의 증장이나 지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욕을 위해 환생제도를 이용한 환생자들이 있었다"면서 환생제도의 시대착오적인 면과 부정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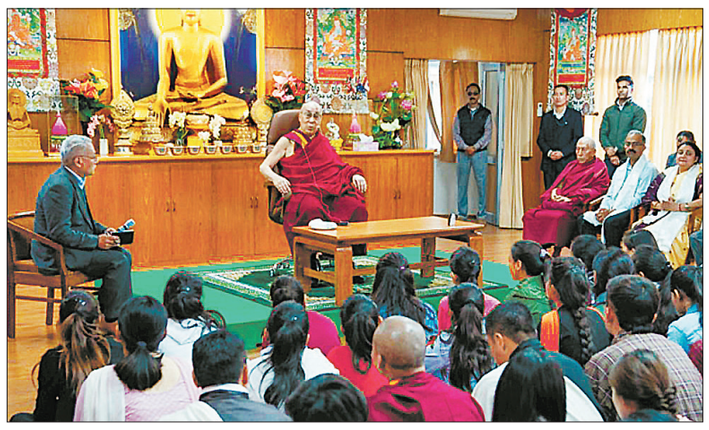
인도불교에는 없던 환생제도
티베트 특별한 전통이었지만
이젠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
중국 개입 막기 위한 해석도

외신 '라이온즈 로어'는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제도는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지며, 법맥을 전승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달라이라마가 지적한 것처럼 봉건제도상 지방의 정치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용돼 왔으며, 최근 중국정부가 티베트의 환생자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거치게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정부는 최근 거듭되는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맞춰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나 후계자가 중국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라이온즈 로어'는 "달라이라마만으로는 티베트 불교 전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티베트 정부의 수반을 이어온 역사성에서 티베트 불교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달라이라마 환생제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한편 계속되는 환생자와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10월 28일 달라이라마를 접견한 미국의 종교자유 대사인 사무엘 브라운백과 대표단은 "미국정부는 달라이라마를 지지하며, 그 승계에 있어서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부가 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선발하는 역할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과 그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다른 정부나 단체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 역시 "달라이라마 제도의 존속과 그 후임자에 있어서는 티베트인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중국정부는 이번 발언과 브라운백의 미대표단의 발표에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베이징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티베트 관련 문제는 중국 내부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세계각지에서 온 대학생들과 대담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전통극화로 풀어낸 부처님 일대기

印 이야기꾼 기르다니 씨, '다스탄고이' 기법 활용

인도에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여성 이야기꾼이 있어 화제다. 인도의 유력매체 '더 힌두'는 11월 2일 여성 이야기꾼 푸남 기르다니 씨가 인도 전통 스토리텔링 기법인 '다스탄고이(Dastangoi)'로 부처님의 서사를 풀어내는 작업을 소개했다.

'다스탄고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인도전통 극화예술 중 하나다. 중세 인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나 힌디어로 진행되며, 한 사람의 이야기꾼이 일인극 형식으로 서사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1928년 마지막 전통 다스탄고이 이야기꾼 미르 바카르 알리의 사망과 함께 명맥이 끊겼다. 이에 전통예술을 부활시키려는 유지들이 생겨났으며, 푸남 기르다니 씨는 보기 드문 여성 이야기꾼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기르다니 씨가 불교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처님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동료의 부탁에 회의적이었던 기르다니 씨는 우연히 아잔타 석굴을 방문, 부처님에게 유미죽을 공양 올리는 수자타 벽화를 보고 감동받았다.

불교 지식이 없던 기르다니 씨는 먼저 〈본생담〉 등의 이야기가 중심인 불교문헌을 공부했다. 그 중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들의 게송집인 〈테리가타(장로니게)〉를 접하면서 각본과 이야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처님의 서사시를 이야기하는 푸남 기르다니씨. 사진출처=더 힌두

기르다니 씨는 "〈테리가타〉는 부처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보호문제를 생각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싱글 맘으로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그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최근 몇 년간 내가 느껴온 상실감과 그 대처법,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해줬다"며 전통적인 우르두어와 힌디어 다스탄고이 안에 불교의 고전언어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넣은 각본을 준비하고 있다.

기르다니 씨는 "싯다르타가 떠나갔음에도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렸던 야쇼다라 공주의 이야기를 곁들여 보편적인 진리와 사랑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펴뜨리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20대 스님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대학서 함께 춤 춘 스님들
청년 포교 위해 무대 올라
"평화의 가르침 알아가길"

일본의 국보를 소장한 산문(山門)에서 벌어지는 댄스타임. 춤을 추는 이들은 다름 아닌 젊은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사찰에서 특별한 댄스공연을 펼친 소식을 11월 1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마이도나 뉴스'가 전했다.

일본 교토 히가시야마 지구에 위치한 고찰 지온인(知恩院). 일본 정토종의 총본산이자 종조 호넨(法然) 스님의 묘소가 있기로 유명하다. 지온인의 산문에 해당하는 삼문(三門)은 높이 25m의 거대한 문으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가을을 맞이해 지온인에서 한 달간 열리는 야간 라이트업 행사에 맞춰 이 문 앞에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 두 명의 스님들이 브레이크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출연자는 지온인의 소임을 보고 있는 카와하라 코키 스님과 아스카이 죠지츠 스님. 20대 동갑내기의 두 스님은 대학시절 같은 댄스 동아리에서 함께 춤을 시작했다. 비록 서로 다른 종단에 속해있지만 춤으로 하나 되어 동고동락해왔다.

댄스 공연은 지난 5월부터 기획했다. 코키 스님은 "야간 라이트업 행사 기획회의에서 '대학시절 브레이크 댄스를 했다'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회의를 진행하던 다른 스님들과 직원들이 농담조로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어보였다.

코키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브레이크 댄스는 불교의 가르침과 통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댄스는 미국의 갱단들 간의 항쟁을 멈추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으며, 점점 인종과 국적을 묻지 않는 춤으로 발전했다는 게 그 이유다. 스님은 "브레이크 댄스는 평화와 평등의 바람이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론, 정토종의 종조인 호넨 스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코키 스님은 "댄스 전에 간단한 법문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을 보러 온 젊은이들이 불교나 사찰에 흥미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죠지츠 스님은 "종파의 벽을 넘어 젊은 스님들이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연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다.

두 스님은 "평화와 평등의 바람이 담긴 마음으로 춤을 출 것"이라며 "단순한 댄스 공연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공연이 성황리에 회향되길 기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브레이크 댄스와 불교를 접목한 카와하라, 아스카이 스님. 사진출처=마이도뉴스

印, 불가촉천민 1,500명 단체수계

카스트제도 불평등에 항의… 불교신자 점차 늘어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열린 단체 수계식에서 1,500여명의 불가촉천민이 불교에 귀의했다.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10월 27일 인도 남서부의 아마다바드에 있는 사르달 발라브바이 파탈 파탈 국립기념관에서 열린 단체 수계식을 보도했다. 수계식은 대만 불광산사 산하의 '국제불광협회(BLIA)'가 주관했다.

이번 수계식에서 남편, 세 아이들과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만줄라 마크와나 씨는 "평등은 우리가 불교에 귀의한 유일한 이유이다. 힌두교도로서 우리는 평등하게 지낼 수 없었다. 차별과 멸시를 겪었다. 내가 사는 수렌드라나가르는 불가촉천민에게 차별과 멸시로 악명 높은 곳"이라고 수계와 개종의 이유를 밝혔다.

경영학 학위를 준비하는 엔지니어 니사르 파르말 씨는 약 25명의 대가족 구성원들과 불교로 개종했다. 파르말 씨는 "가족 모두 힌두교도였지만 차별과 카스트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불교는 평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기로 했다. 나는 인도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카스트제도가 인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 내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부터 불가촉천민을 향한 폭력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이 문제되고 있다. 2018년에는 결국 수십만 명의 불가촉천민이 계속되는 차별에 항의하며 집단 시위를 벌인바 있다.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 바드리나라얀 교수는 "이 현상은 힌두교 종말의 시작이다. 만약 힌두교 상류층이 지속적으로 불가촉천민을 몰아낸다면 힌두교도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인도에는 약 840만 명의 불교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집단개종에 의해 그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